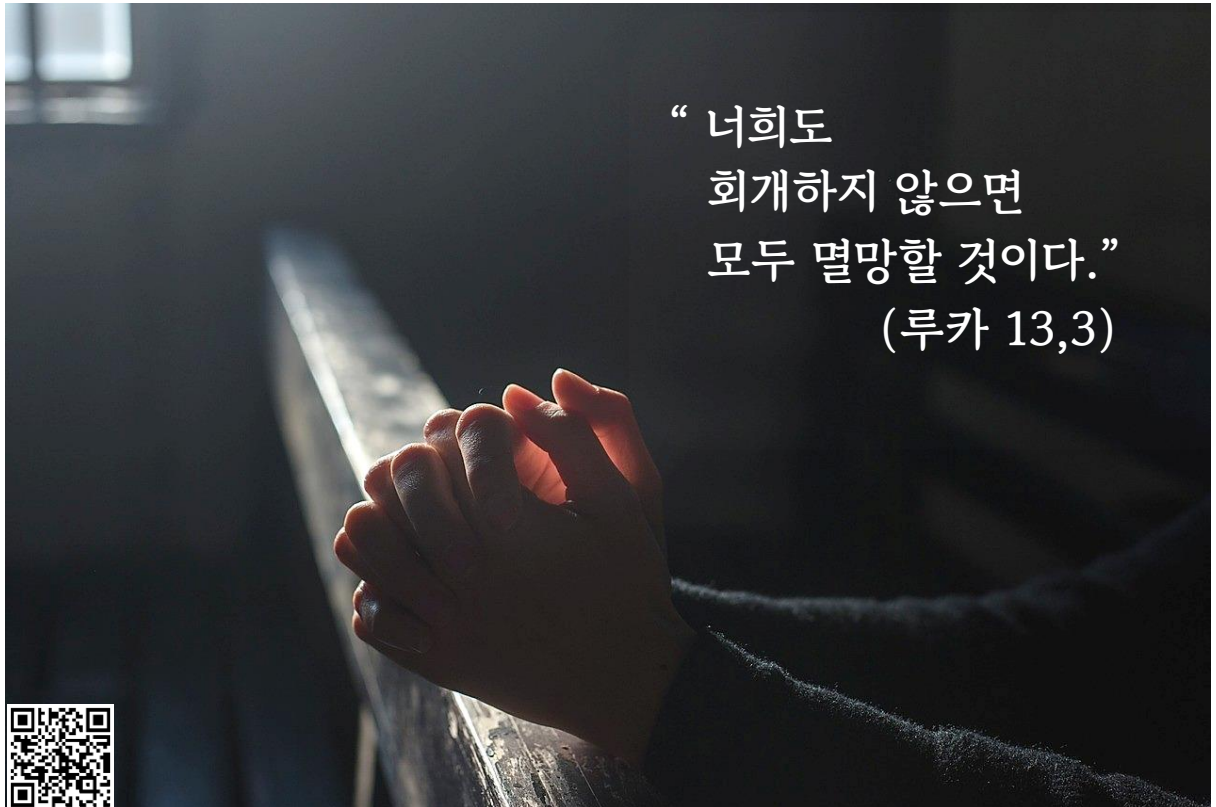


아케엠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루카 13,3)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사순 제3주일

오늘은 사순 제3주일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아들딸들을 결코 버려두시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끊임없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 제1독서

탈출 3,1-8ㄱ,13-15

• 입당송 시편 25(24),15-16

• 화답송 시편 103(102),1-2,3-4,6-7,8과 11(◎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2독서

1코린 10,1-6,10-12

• 복음환호송 마태 4,17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복음

루카 13,1-9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세상 일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읽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용감히 전할 수 있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치자이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깊이 성찰하고, 사회적 우애와 공동선 실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3.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고령 사회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을 굽어보시어, 노인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세대 간 이해와 존중으로 그들의 삶이 은혜로울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중동 한인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의 봉사를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 영성체송

시편 84(83), 4-5 참조

[아캠] 온라인 사순 특강 (2차)



- ▶ 일 시 : 3월 26일 (수) 20시 (UAE 기준)
- ▶ 강 사 : 이미숙 루치아 수녀님(살레시오회)

[아캠] 2025년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 신청

- ▶ 일 정: 9월 12일(금) ~ 18일(목) / 6박 7일
- ▶ 인 원: 선착순 40 명
- ▶ 예상 비용: 1 인당 \$1,200 (항공권 별도)
- ▶ 접수 방법: 순례 담당 여행사인 '마리아투어'에 직접 신청 (mariatour121@gmail.com)
(항공권 구매 후, 신청서/ 여권 사본 첨부 메일 발송, 신청서는 사무국에 문의)
◆ 중요: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성함을 사무국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형제회] 배의태 요셉 선교사 송별 감사 미사



지난 2월 10일 17시 30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60년간의 선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4월 7일 영구 귀국 하시는 배의태 요셉 신부님의 송별 감사 미사가 있었습니다. 요셉 신부님의 앞으로의 날들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배의태 요셉 신부님은 1964년 스페인에서 서품을 받으시고 196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왼쪽 사진: 서정천 라파엘 신부님(좌), 배의태 요셉 신부님(중), 강인조 알렉산델 신부님(우)은 스페인에서 함께 한국으로 파견되셔서 현재 한국에서 선교사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교종 프란치스코] 3월 기도 지향

3월: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들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도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카타르 공동체>: 공동체 복사단 창단 후 첫 미사 그리고 공동체 회식



3월 14일 (금)

<두바이 / 아부다비 공동체>: 희년 성지 합동 순례



3월 16일 (주일)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 아멘.

교황 프란치스코를 위한 기도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희는 당신의 종 프란치스코를
자애로이 돌보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는 예수회원으로, 사제로, 대주교로, 추기경으로,
그리고 교황으로서 당신을 섬겨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아드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포함하여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 연민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새로운 병마와 맞서 싸우는 이때,
그를 돌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고통을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바칩니다.

아멘.

- 제임스 마틴 SJ 신부 -



선 . 생 . 님 . 공 . 금 . 해 . 요 .



<9> 신경이 달라요

미사가 끝나고 한 학생이 쏘르르 달려옵니다. “선생님, 미사 중에 바친 신경이 왜 달라요? 지난주 외할머니댁에 가서 그곳 성당에서 미사 봉헌했는데, 그 성당과 우리 성당 신경이 달랐어요.”라며 그 이유를 묻습니다.

제가 소속된 본당도 예전에는 미사 중에 사도신경을 바쳤 습니다. 지금은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칩니다. 일반 교우들은 보편적으로 사도신경을 많이 바치기 때문에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 주었습니다.

신경(信經)이란 신앙 조문을 하나로 체계 있게 묶은 것으로, ‘신앙고백’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교의 신앙 진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신앙고백’은 세례 때 서약한 신앙을 새롭게 하고 복음의 말씀을 성실히 받아들이며 주님께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경(신앙고백)을 바치는 이유

- 세례 갱신(세례 때 고백한 신앙의 믿음을 재확인합니다)
- 신앙선포(믿음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며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 구원의 주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은 단순한 신앙고백이 아니라 신경의 내용대로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경의 종류

옛날에는 신경이 여러 개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경은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아타나시오 신경,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1. 사도신경

로마 교회의 세례를 위한 옛 신경, 사도들이 직접 예수로부터 배운 신앙고백을 묶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2.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교회 초기의 두 공의회(325년 니케아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작성된 신경입니다.

3. 아타나시오 신경

아타나시오 성인이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로 엮은 신앙 조항입니다.

신경이 3개 생긴 이유

옛날부터 가톨릭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을 말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신경을 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가톨릭의 참 신앙을 받아들이는 표시입니다. 신경은 우리 신앙의 응답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증언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의 일치를 염원하는, 사도 시대부터 전해오는 감명 깊은 신앙고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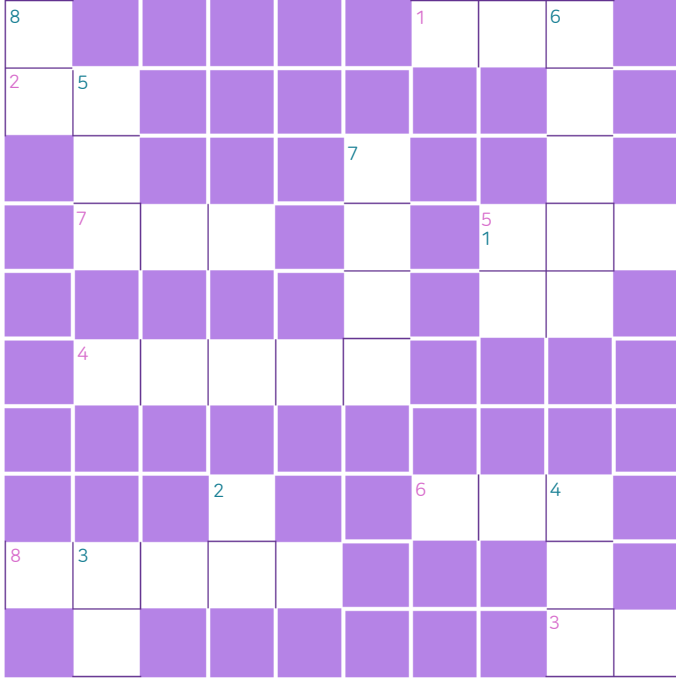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는 주일과 대축일에 사제와 교우들이 함께 신앙고백을 낭송합니다.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미사 때도 바칠 수 있으며,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대신 사도신경(곧 로마 교회의 세례 신경)을 바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여기서 고개를 숙여 깊은 절을 하는 이유는 주님께 대한 흠숭, 감동의 표현입니다)



가로 세로 낱말 퀴즈



< 가로 퀴즈 >

- 영성체를 하기 전에 사제와 신자가 지켜야 하는 단식 규정. 성체를 받아모시기 1시간 전부터 물과 약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뜻한다.
-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룩한 제사를 의미.
- 사무엘의 고향.
- 미사 중에 바치는 '○○○ ○○' 끝에 바로 아멘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전례력으로 3월은 ○ ○ ○ 성월.
- 자비송. Kyrie.
- 주님 변모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타보르 산에 지어진 주님 변모 성전 양쪽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던 두 명의 예언자의 경당이 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경당이고, 다른 하나는 ○○○를 위한 경당이다.
- Station of the Cross.

< 세로 퀴즈 >

- 축성하지 않은 밀떡은 '제병'이라고 하며, 축성하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
-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입는 제복.
- 사제가 미사 중 입는 제복은 해당 미사의 고유한 뜻과 축일의 의미에 따라 그 색이 다양하다. '참회와 보속'을 뜻하며, 대림 시기와 사순시기에 입는 색은 ○○색이다.
- 바빌론 유배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해이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준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정화와 개혁을 위해 힘쓴 예언자. 제2의 모세로 부름.
- 한나의 아들.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이며 예언자. 이스라엘이 판관제에서 왕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첫 국왕으로 세움.
- 사순 시기의 시작. 먼지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되새기고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며 자비를 통한 구원의 필요를 되새기는 날.
- 제대의 초는 빛이신 ○○○○를 상징하며, 이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뜻한다.
- 사제가 복음 선포 끝 부분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때, 교우들이 응답하는 문구인 "그리스도님, ○○합니다"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 ○○로 응답하는 것으로,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이다.

※ 응모 방법 및 마감

: 3월 26일 정오(UAE 기준)까지 아캠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ID : ellajoy1726)

※ 정답 및 정답자/당첨자 발표

: 207호(다음주) 아캠 주보에 공지

※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퀴즈 참고 주보: 197호 ~ 205호

소금 한 꼬집



사순 시기는 절제하고 극기하느라
괜히 배고프고 지칠 수도 있지만,
더 가볍고 더 단순하게

‘하느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월간 생활성서 '소금항아리'에서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बैं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SGE 두바이삼성학원 강남 삼성학원 두바이 분원 1. 아부다비/두바이 국제학교 2. 현지 대학 입학 대행 서비스 3. 특례 입시 전문 4. 성인반 영어 프로그램 정미숙 라파엘라 (+971) 50 461 3991 /  : 두바이삼성학원
---	--	---